

25년 여정 상기... 전통예술로 맺은 인연 조망

CULTURE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국악중심 '연', 창단 25주년 공연
'유정불망: 인연으로...' 타이틀
24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전문예술법인 (사) 국악중심 '연'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24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유정불망-인연으로 이어진 길'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전문예술법인 (사) 국악중심 '연' (대표 김나영)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24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갖는다.

'유정불망-인연으로 이어진 길'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기념공연은 국악중심 '연'이 걸어온 지난 25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과 예술적 교류를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번 '유정불망-인연으로 이어진 길'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성장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공연으로, 전통예술의 현재적 가치와 세대 간·지역 간 예술의 연결고리를 되짚고 확장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배우 3명이 출연해 연극적 형식으로 전체 공연을 이끌어가며, 사회자 없이 배우들이 국악중심 '연'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歌)·무(舞)·악(樂)·극(劇)을 한자리에서 모두 선사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

통국악 공연에 신선하고 흥미로운 연극적 요소를 더해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한다.

특히 김나영 대표와 함께 예술의 길을 걸어온 동료, 선배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情)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유정불망(有情不忘)을 예술로 되새긴다.

진도를 비롯해 대구, 서울, 천안, 일산, 광주, 전주, 남원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색채를 살린 전통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김 대표의 북춤 양태옥류 진도북놀이, 한영숙계 박재희류 태평무, 손혜영의 산조춤과 승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등 한국 전통춤의 정수가 무대에 오르며, 단막창극과 다양한 창작 공연도 포함된다.

극작·연출은 극단 '자루' 오지훈 대표, 조연출은 흥영근씨가 맡았으며, 공연 음악은 전통국악양상발 '늘음판'의 김승호 양희정 김원근 김준영 이소리 신지수 오은수씨 등 실력과 약사들이 함께하는 '전통 국악 실연'으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출연진으로는 특별출연 박강열 (진도북놀이 예능보유자), 손혜영 (태평무전승회 영남지회장, 아정무용단 대표), 진도북놀이 박영철 김완성 한상욱 강현범 송주광씨, 무용에 장윤정 이현희 고선옥 신지연 조연우 안주연 최다민씨, 단막창극에 유순덕 소지원 송혜원씨, 배우에 오민혁 이주현 김민지씨 등이 함께하며, 기획은 김신에서, 무대기술은 '십년지기'가 각각 맡는다.

국악중심 '연'은 2000년 창단 이래 광주를 기반으로 전통춤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며 무대 공연,

교육 사업,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후진 양성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다년간 축적된 기획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한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순회공연과 광주 APEC 공식 행사에서도 외국인 관객을 위한 전통국악공연단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문의 062-572-8826.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해외 작가들 광주서 새 창작 여정 시작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레지던시 돌입
독일·스페인·모로코 등 국내외 예술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대표 정현기)는 8월부터 하반기 입주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창작 여정을 시작했다.

권승찬, 신승엽, 이지은 등 한국 작가들과 더불어 폴란드의 알리시아 위소스카 (Alicja Wysocka) 가 첫 입주를 마쳤고, 독일의 마틴 라이히 (Martin Reich), 프랑스의 나탈리에 피레 (Nathalie Pires), 모로코의 알바노 에르난데즈 (Albano Hernandez), 필리핀의 랄프 룸브레스 (Ralph C. Lumbres), 스페인의 아이노아 마르티네즈 (Ainhoa Martinez) 등이 광주에 속속 도착해 창작소의 문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아이노아 작가를 포함해 서영기, 이재환, 임형성, 권승찬, 신승엽, 이지은 작가는 대구에서 진행 중인 레지던시 연합전에 참여해 자신들의 작업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발걸음은 9월 여수에서 열린

국제미술제로 이어진다. 루스 말분 (Ruth Marbun), 서영기, 시오반 맥브라이드 (Siobhan McBride), 아이노아 작가가 이번 여수 전시에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전반기 성과로는 미국 출신의 시오반 작가가 레지던시 기간 중 폴락-크라스너 파운데이션 (Pollock-Krasner Foundation)의 기금 지원 작가가 선정돼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창작소 관계자는 "세계의 예술가들이 광주라는 도시 공간 속에 녹아들면서, 단순한 창작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의 활동이 광주라는 지역에 새로운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후반기 입주 작가들의 작업은 향후 전시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예술 애호가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이들이 풀어낸 작업들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예술 언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케데헌 '골든', 빌보드 1위... 영·미 싱글차트 석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 (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는 11일 (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 (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곡은 이로써 영국과 미국 팝 시장의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9% 증가한 317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71% 증가한 840만, 판매량은 35% 증가한 7000으로 각각 집계됐다.

통상 K팝 히트곡이 실물 음반 판매량이나 다운로드



에 기반하는 것과 달리, 대중적인 '인기 지표'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이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빌보드는 "헌트릭스의 실제 가수인 이재와 레이 아미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뉴저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 곡은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데뷔한 이래 작품의 흥행을 등에 업고 23위, 6위, 4위, 2위, 2위로 '차트 여주행'을 하더니 7주 차에 결국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홍도횃집

홍도 횃집

경매, 정동 유비끼, 정동

정동 유비끼

정동

정동 / 감성동 / 농어 / 광어 / 세꼬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

❤️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시사광남문화재단

유비끼 전문

최월동 비포호지역

하이마트 쪽

축협

원도포장머

남구청

백운리터미

국제셀프주거장

장미아트입구

조대방향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배달의민족 주문가능